

# “백운광장에 아치형 보행자 도로 설치하자”

### 남구 제5기 도시재생 뉴딜 아카데미 팀별 성과 발표·수료식 백운·방림·사직·대촌 4개 권역별 시민들 아이디어 쏟아져

“향후 절거릴 백운광장 고가도로 주변에 360도 회전하는 아치 형태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셰어 하우스를 운영해주세요.”

지난 6일 오후 광주시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도시재생 뉴딜 아카데미 팀별 성과 발표·수료식’에 참가한 남구 주민들은 도시 재생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1월부터 제5기 도

시재생 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 교육·현장학습에 참여한 수강생을 비롯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30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성과 발표회는 백운권역과 방림권역, 양림·사직권역, 대촌권역 등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약 30여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백운권역 참가자들은 백운고가 아치형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백운광장 부근에서 단절된 푸른길공원 산책

로를 잇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옛 경전선 구간엔 전동 외발바이크 설치 및 대여, 백운광장 주변 푸드트럭 조성공간 마련, 진다리 붓 등 체험공간 조성 등의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방림권역에서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활용해 공동 육아와 교육상담을 진행하는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신혼부부·대학생을 위한 셰어하우스 운영, 노점상 활성화를 위한 길고 싶은 거리 조성 등을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양림·사직권역 참가자들은 사직산과 양림산을 연결하는 숲속 트레킹길 조성과 빈집을 활용한 동네 간이공장 설치, 광주천 주변 녹지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

인 및 집주인간 협력사업 등을 제안했다.

또 대촌권역에서는 빗고을공예장작촌 3층에 천체망원경을 설치하고 캠핑할 수 있는 ‘캠 카페’ 운영, 하천 복개를 통한 장터 조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발굴한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한 아이디어는 향후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주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이날 도시재생 뉴딜 아카데미에 70% 이상 출석률을 보인 수강생 20여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청사 옥상서 키운 채소 복지시설 전달

상수도본부 남부사업소 추 2박스 등을 전달했다. <사진> 파란꿈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소외받은 아동에게 가정의 역할을 보완해 주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관이다.

현재 유치원생 3명, 초등학교 29명, 중학생 8명 등 총 40명의 아동들이 살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됐다.

양성갑남부사업소장 등 직원들은 지난 7일 재매결연 시설인 남구 대촌동 소재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 김장용 배추 50포기, 알타리 무우 4박스, 겨울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직원들이 청사 옥상 텃밭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무농약 채소들을 주변 복지시설에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양성갑남부사업소장 등 직원들은 지난 7일 재매결연 시설인 남구 대촌동 소재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 김장용 배추 50포기, 알타리 무우 4박스, 겨울상

/윤현석 기자 chad@kwangju.co.kr

## 자원봉사 대상 민인식·대통령 표창 주행자씨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 국무총리 표창 한양례씨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광주시는 지난 7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5)을 기념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 민인식(59) 봉사자가 자원봉사대상 포장을, 엠마우스복지관 주행자(여·79) 봉사자는 개인부문 대통령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표창에 한양례(여·80), 행정안전부장관표창에 김재철(55), 이계연(60), 양삼순(여·71), 정선

근(51), 문순자(여·55), 심효순(여·69) 자원봉사자들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에 헌신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수요기관 관리자, 자원봉사단체·기업,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광주시장 표창을 전달했다.

최동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kwangju.co.kr



## 길거리 온기텐트서 추위 피하세요

서구 한파 대비 8곳에 설치

광주시 서구가 지난 겨울에 호응이 좋았던 한파 대비 온기텐트(8개소)를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버스 탑승객이 많은 승강장을 중심으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운전자, 탑승대기자의 시야확보에 방해 되지 않는 곳을 선정했다. 위치는 시청·서구청·서구문화센터·마재우체국·신세계백화점 버스승강장 옆 8개소다.

서구청 관계자는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는 이번 겨울에도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지난해 하루 한명꼴 자살 사망

329명...상당건수 매년 증가

지난해 광주시 자살 사망자는 329명이었고, 하루 한 명 가량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는 낮은 자살사망률을 보였지만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9일 “지난 2013년부터 '1577-0199'(자살 및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상황에 대해 24시간 전화상담 및 즉각적 현장개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상당건은 2013년 4451건, 2014년 7742, 2015년 8888건, 2016년 8292건, 2017년 8985건으로 2018년 현재 8000건에 달했다.

또 자살 시도 등 즉각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112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24시간 현장면

담을 통해 위기개입을 진행한다.

현장출동은 2013년 154건에서 2018년 11월 기준 627건으로 4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 출동건은 야간, 공휴일만 해당되는 수치로 주간 출동건까지 포함한다면 2017년 기준 1089건의 현장출동이 진행됐다.

이에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난 7일 ‘2018년 24시간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개입 성과보고회’를 광주 남구에서 경찰 80여명을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신일선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자살예방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 일이지만 자살사도 등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 개입은 24시간 전문기관과 경찰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기적 관계 형성은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조건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가로등 5만5915주 모두 안전

전기안전공사 점검 적합 판정

광주지역 가로등 시설물이 전기설비 안전 점검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9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2018년도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기감전에 의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가로등 5만 5915주로, 가로등 분전함 내 누전차단기 정상동작 여부, 전선로 절연저항 및 누전 발생부·점등 개소 파악 등 설비 전반을 점검했다.

각 자치구는 최종 안전검사에 앞서 현장 점검에서 나타난 부적합 시설물을 즉시 보수했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야간에 소등되는 등 불편사항은 각 구청 가로등 담당부서 또는 광주시 도로과로 연락하면 된다.

광주시 김준영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을 위해 사소한 고장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점검해 감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후 가로등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